

동성혼 시대를 향한 기독교 변증 영화 제이콥 카인드버그 감독의 '싱 오버 미'



동성애자 찬양가수의 변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귀에 익숙한 찬양곡 '약할 때 강함 되시네'는 언제 들어도 기독교인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한(요1:36) 세례 요한의 고백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고백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옴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노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가수 데니스 저니건(Dennis Jernigan)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의 고백을 담은 영화 <싱 오버 미>(Sing over me)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영화 <싱 오버 미>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데니스 저니건의 신앙적 갈등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다. 마치 무

용담처럼 어두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빛나는 행복을 이뤘다는 간증형식의 여느 다큐멘터리 영화와는 다르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쏟아내기 보다는 주인공이 보여주는 진솔한 고백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기독교인이라면 동성애로부터 돌이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까닭에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도 감동받고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는 유명 찬양사역자의 다큐답게 그가 부른 찬양을 배경음악 삼아 그의 과거를 비추며 현재의 고백을 담았다. 어린 시절의 사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부모님과 인터뷰와 그의 절친 척이 말하는 저니건에 대한 언급 사이사이로 부모와 친구가 몰랐던 저니건의 동성애에 대한 고백이 이어진다.

다섯 살 나이에 공중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나타난 성인 남자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청소년시절 여자아이 같다는 놀림을 피하기 위해 여자 친구에게 키스했지만 전혀 이성의 느낌을 받지 못한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동성애자들의 과거와 비슷하다. 그러나 저니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만드셨으니 난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식의 동성애에 대한 자기정당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변화를 모색해왔다는 점에서 동성애를 숙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다큐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독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동성애가 유전적 혹은 선천적인 까닭에 동성애에 대한 책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려는 동성애 숙명론자들의 의견이 틀렸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왜곡된 이해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 숙명론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는 후천적이며 사회적 학습에 따른 경향이 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모든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일란성 동성애자 쌍둥이는 함께 동성애자여야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싱 오버 미>는 데니스 저니건을 통해 동성애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왜곡된 성적 경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성혼을 주장하는 시대의 문화변증

<싱 오버 미>는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적취향으로 인정하려는 현대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싱 오버 미>가 기독교 동성애자

들을 향한 최고의 기독교 변증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현대의 세속적이며 상대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프란시스 웨퍼는 기독교 문화의 변증학적 성격을 강조한 바 있다. '변증학(Apologetics)'이란 일종의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웨퍼는 '변증학'의 목적을 방어(defense)와 전달(communication)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방어는 비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 메세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논증적 방어를 뜻한다. 그러나 웨퍼는 그의 다양한 저술과 강연, 그의 아들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던 프랭키 웨퍼를 통한 영화제작활동이 의미하듯이 방어보다 전달에 관심이 많았다. 즉 그는 어떤 특정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독교를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때 영화 <싱 오버 미>야 말로 오늘날 영화세대에게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전달하는 훌륭한 문화변증의 실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싱 오버 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은 교회안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고 산다는 점이다. 저니건 역시 성인이 된 이후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죄의식에 휩싸이는 한편으로 동성을 갈구하는 육체의 정욕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았음을 고백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5:17)는 성경말씀은 그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찾아간 교회의 도움은 없었고 오히려 교회 목회자는 자신을 탐하는 또 다른 동성애자였음을 알고 기겁할 수밖에 없는 과거 상황묘사에 관객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동성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교회는 딱 두부류로 나뉘어졌다. 동성애에 대한 신랄한 비판만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그와 동성애를 나누기 원하는 목회자가 자리한 교회였던 것이다. 이 때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란 교회에서는 이성애자인 척하며 입을 다물고 밖에서는 육체의 탐욕에 스스로를 맡겨버리는 일이다. 교회는 고민 끝에 예배당을 찾는 동성애자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둘째, 영화는 예수님이야말로 동성애에 대한 갈등과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답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 영화 가운데 가장 명언이라 할 수 있는 대사가 저니건의 절친 척으로부터 나온다. 동성애로 살아온 친구의 고백을 들은 후 척은 매우 감동적인 말을 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답은 안다. 답은 예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답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롬5:8)이라면 가능하다. 어쩌면 당연하고 기독교의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데니스 저니건은 자신의 삶과 그가 만든 찬양곡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싱 오버 미>가 이 시대의 동성애와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의미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동성애자를 향한 정죄와 비판과 같은 공격적인 어투를 쓰지 않고 ‘교회의 동성애자인 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할 뿐이다. ‘동성애자인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알려 주겠소’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셨소’라는 ‘

나 중심의 언어’를 택하고 있는 까닭에 누구도 마음의 불편함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다. 세상이 판단하는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이며 그들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불쌍하며 사회의 약자이다. 이들을 향한 교회의 비판은 역으로 교회를 향한 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성애자를 도울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동성애자들 가운데는 AIDS나 섹스중독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돕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오히려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인의 사랑의 실천에 동화되어 데니스 저니건처럼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도 ‘싱 오버 미’가 필요하다

지난 11월 14일, 한동대학교에서는 ‘동성혼과 한국 교회의 과제’란 주제를 놓고 콜로키움이 열렸다.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이미 기독교 안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연구된 자료도 비교적 많고 대중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동성혼(同性婚, same-sex marriage)’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반면에 그 영향은 동성애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를 둘러싼 세상은 한국 대다수의 교회의 비판적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미국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판정을 내리고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혼인행위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전역은 성적 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지지하는 무지개 빛 물결로 뒤덮였다.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전에도 이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재선을 앞두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통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는가 하면, 금년 1

월에 있었던 국정 연설에서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바이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성소수자들을 지지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동성애자 영화감독이며 제작자로 널리 알려진 김조광수 감독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조광수 감독은 2013년 9월에 결혼식을 올린 후 3개월 뒤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소송을 낸 것이다.

동성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 두 가지로 움직인다. 하나는 국회나 법원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라는 기본권을 주장하며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대중들의 심리적 지지를 얻기 위해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김조광수와 김승환 동성애자 부부의 결혼식을 다룬 멜로드라마 <마이 페어 웨딩>이 개봉되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비록 지금까지 공식적인 관객 수는 4,586명에 불과하지만, 평론가들이 지적한 대로 결혼식이라는 사적인 행사를 통해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동성애를 다뤄도 기독교 시각에서 다룬 영화들은 국민일보를 제외한 일반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는 반면에 동성애 영화들은 언론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동성애를 다룬 퀴어영화제는 매년 언론에 그 행사를 알리며 화제가 되고 있지만 기독교영화제는 교회에서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최고의 영화잡지인 ‘씨네21’

에서 동성애를 다룬 영화 <싱 오버 미>와 <마이 페어 웨딩>을 검색해 보라. <마이 페어 웨딩>은 줄거리나 제작 노트에서 전문가 리뷰까지 다른 영화들과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싱 오버 미>는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두 영화 모두 독립영화 혹은 예술영화로 취급 받는 바람에 전국 극장에 동시에 걸리는 와이드 릴리즈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영화 전문가 그룹은 기독교영화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독교 대학에서조차도 동성혼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독교적 시각을 전혀 개선시키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지난 11월 숭실대학교에서 일어난 <마이 페어 웨딩> 상영 불허에 따른 학내 논란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SSU LGBT는 학내에서 인권영화제를 열고 김조광수 감독 부부를 초청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영화제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와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주최 측이 이에 반발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와 영화적 감동을 훌륭히 전달하는 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소극적인 방어에 머물고 있는 형편임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기독교 문화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필름 포럼’이 이 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중이다. 지난 부활절에도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는 상영할 극장을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볼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마침 ‘필름 포럼’이 교회로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보면 좋을 듯 싶다. (문의: 필름 포럼, 02-363-2537) 

※ 이 글은 「갯피를 매거진」 2015. 10월호와 「월간 고신」 2015.11월호에 실린 필자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